

朴대통령 “화해와 상생의 기회”

아베총리 “양국관계 개선·발전”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리셉션에 참석해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한 일본 대사관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강조했다고 민경욱 대변인이 전했다.

민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행사는 양국의 국교 정상화를 축하하고 새 한일 관계를 열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접견한 뒤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아울러 일본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 장관은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로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행사에

“과거사 문제 등

일본 정부 태도

대승적 변화 필요”

참석해 동일한 내용의 박 대통령 축사를 대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한일 관계 ‘정경분리’ 기조에 맞춰 양국이 과거 50년을 넘어 향후 50년의 발전을 향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대일 메시지를 내놓았다. 행사의 성격 자체가 양국관계 미래 발전을 위한 자리인 만큼 과거 갈등보다는 미래 협력에 무게를 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과거사 왜곡 문제 등에서 일본 정부의 선제적이며 의미있는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친구는 고를 수가 있

양국 정상, 서울·도쿄서 열린 리셉션 교차 참석 축사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오후 서울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개최된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우리 정부 주최로 도쿄에서 열리는 리셉션에 참석했다.

이처럼 양국 정상의 한일수교 50주년 기념행사의 교차참석에 성사됨으로써 과거사 갈등으로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양국 관계가 진전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지만, 이웃은 고를 수가 없다. 한일 양국은 운명적으로 같이 가야 하는 나라”라며 “박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대승적으로 정리해가면서 미래를 향해 함께 나가자”는 의미를 두고 대일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일수교 50주년과 관련, “양국이 이날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한일관계의 실태를 어떻게 푸느냐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다음 세대 위해

양국간 잔여 현안

솔직한 이야기 중요”

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하다”며 “한국과 일본은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양국이 지역, 세계 과제에 협력·대처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축하 행사가 열린 것을 마음으로부터 축하하며 박 대통령과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이들 행사에 각각 참석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베 총리는 22일 “(한일) 양국 국민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다음 반세기를 향해 관계를 개

선·발전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이날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의 총리 관저에서 예방차 방한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반세기전 오늘 일한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말한 뒤 “양국 사이에 여러 과제와 문제가 있을수록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아 관계 진전을 염원(한일관계) 새로운 50년의 원년이 되도록 하자”는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장관은 또 면담 후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베 총리에게 군위안부 문제를 거론했는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했다”고만 소개했다. 또 “양국간 잔여 현안과 도전이 있는데 세계유산 등재 문제 처리 과정에서 보여줬듯 양국이 신뢰와 타협의 정신 아래 이런 문제에 접근하면 앞으로 양국관계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오후 도쿄 도내 웨라톤 미야코 호텔에서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균함도 세계유산 등재에 ‘강제징용’ 반영 사실상 합의

한국과 일본은 일본 산업혁명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징용 사실을 반영한다는데 사실상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 21일 도쿄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세계유산 등재 신청건과 관련, “세계유산위원회의 책임 있는 위원국으로서 신청된 안건이 완전한 대화를 통해서 등재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다.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시

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타결하자는 공통인식을 갖고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가까운 시일내 양국 대표간 협의가 있으면 세부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5~6월 진행된 일본과의 2차례 양자협의 때 일본 산업시설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문에 조선인 강제징용 사실을 적시하고, 강제징용이 이뤄진 시설에 표지판 등을 설치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알릴 것을 요구했다.

7월 초 일본 산업혁명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 회의(독일 본)에 앞서 양측은 이 같은 한국의 요구를 놓고 최종 합의 도출을 모색하게 됐다.

지난달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일본 규슈(九州) 지역을 중심으로 한 8개 현에 걸친 총 23개 산업 시설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유네스코에 권고했다.

日 언론 “세계유산 절충 막후엔 ‘독일의 돌직구’ 있었다”

마이니치신문, 물밑 외교전 소개

한일 양국이 일본 산업혁명 시설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 문제와 관련, 절충점을 찾아가기까지 독일 변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

22일자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산업혁명 시설에서 이뤄진 조선인 강제징용 사실을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 사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국을 상대로 한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

진 과정을 소개했다.

신문에 의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지난 3월 방일했을 때 “한국에 (세계 유산 등재와 관련한) 거부권을 갖게 해도 좋은가”라며 물밑까지 한국을 견제했다.

한국도 독일 설득에 공을 들였다. 산업혁명 유산을 유대인 강제수용소, 히로시마 원폭 돔 등과 같은 ‘부(負)의 유산’으로 자리매김시켜야 한다고 독일 측에 주장했

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의 견제가 심상치 않자 관계 부처에 ‘절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그에 따라 기우치 미노루(城內實) 일본 외무성 부대신이 5월 13일 ‘열쇠’를 쥔 독일을 방문했지만 오히려 ‘박’을 확인했다. 기우치 부대신은 독일 국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등록 찬성을 호소했지만 독일 장관은 “독일은 이웃나라와 화해해왔다. 일본도 노력해달라”고 쓴소리를 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

〈5층 100평/즉시입주가가능〉

평수 100평 (분할가능) 5층 전체사용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원

- 1.현 학원 운영중
- 2.상무지구 제일 저렴한 사무실
- 3.시설완비 / 에어컨 2대 내부 깔끔
- 4.시설비 4천만원등 시비 약간 있음
- 5.엘리베이터 완비, 주차 3대무료
- 6.금융가도로 바로 이면코너

010-7384-7800 / 010-6670-9800

법원경매(주)대신경매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추천 특수물건
1.서구 금호동 7층(7층)토180㎡, 건285㎡/감정가 6억6천 - 최저가 2억9천 2.광산구 월계동(토42㎡, 건135㎡)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4천(합동상가) 3.서구 차평동 (토44.77㎡, 건257.71㎡)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4억3천	1.서구 화정동 (근린주택) (토150㎡, 건276㎡) 1층주차장(10대)기/2층음식점 3층노래연습장/4층주택 감정가 12억4천 - 최저가 8억4천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1.여수시 교동 (토180㎡, 건259㎡)감정가 13억 - 6억9천 2.전남 순천 인제동 (토496.8㎡, 건1119.76㎡) 감정가 13억 - 최저가 9억 3.담양 남면(토1427㎡, 건1251㎡)감정가 32억 - 최저가 7억4천 4.북구 문흥동 (토56㎡, 건58㎡)감정가 17억 - 최저가 17억 5.서구 화정동 (토150㎡, 건276㎡) 감정가 12억4천 - 최저가 8억4천(근린주택)	2.북구 운암동 (근린주택) (토160㎡, 건283㎡) 개발기회투자주택 (1층/상가, 음식점, 사무실~3층사무나) 감정가 8억5천 - 최저가 5억9천7백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근물) 1.화순읍 삼현리 2층건물 (토735㎡, 건476㎡)감정가 77억 - 최저가 43억(롯데마트) 2.동구 대인동 (토780.2㎡, 건1992.57㎡)감정가 24억7천 - 최저가 14억 3.순천 4층건물 (토205㎡, 건221㎡)감정가 4억2천 - 최저가 3억	3.광산구 신가동(주유소) (토430㎡, 건170㎡) 신가병원 북동측 인근, 하남대교변 감정가 15억7천 - 최저가 11억
공장/모텔/주유소 1.광산구 신가동 (토430㎡, 건170㎡) 감정가 8억5천 - 최저가 5억9천7백(주유소) 2.전남 정성리(토 2825㎡, 건614㎡) 감정가 41억 - 최저가 15억	4.북구 본충동 3층중 1층 (식당) (토177㎡, 건220㎡) 투자적합, 식당운영중 감정가 14억 - 최저가 9억6천
직원 구함 남, 여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기획 개발까지 배우실분!! 경매직원 구함, 경매 컨설팅 같이 할 직원 구합니다.	5.담양 남면 구산리(교육시설/펜션) (토1427㎡, 건1251㎡) 개발기회투자주택 감정가 32억 - 최저가 7억4천

010-7384-7800 / 010-6670-9800

경매

실전교육반모집

경매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 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본 교육부터 ~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 개발기회까지) → 노후대비 적합

경매직원모집

경매컨설팅 같이 근무할 직원 모집합니다.

남, 여 직원 모집합니다!

부동산 기획개발까지 배우실분

062-382-5500 / 010-6832-9700